

규방공예 '한 땀의 예술' 운영

전주한벽문화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위해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이 지난 9일부터 202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규방공예 '한 땀의 예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규방공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2021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써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궁극적으로는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전주한벽문화관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 사업에 선정됐다. 작년에는 염색체험을 운영했으나, 올해는 기존 전주한벽문화관 교육 체험 커리큘럼에 있던 규방공예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지난달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강생 모집(40명)이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마감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으며 성황리에 모집이 완료됐다.

규방공예는 유교사회에서 사회적 활동이 제한됐던 양반집 규수들의 생활 공간이던 규방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전통 공예 장르로써, 여성의 솜씨를 예술 활동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는 문화예술이다. 최근엔 전통 규방공예와 현대 예술을 접목해 브로치, 지수 마스크 등 실용적이며 친숙한 공예로 일상에서 함께하고 있다.

이에 전주한벽문화관의 규방공예 수업도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바느질 기술 습득, 소품 제작 등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짜여 있다. 교육장소는 문화관 내 고즈넉한 한옥건물인 '경



전주한벽문화관은 지난 9일부터 2021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규방공예 '한 땀의 예술'을 진행했다.

업당'에서 이뤄져 한옥과 바느질이 만나 정서적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영근 관장은 "규방공예는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계승하면서 친환경이 대두되는 시대에 자투리 천을 재탄생 시키는 의미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시민들의 예술활동 감증을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적이며 창의적인 업사클링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한벽문화관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연극 '나와 할아버지' 부안 상륙

부안예술회관서 7월 9일 공연... tvN 사랑의 불시착 표치수역 양경원 주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1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나와 할아버지' 공연을 7월 9일 펼친다고 밝혔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주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78개 문예회관에 228개의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이에 부안예술회관은 '나와 할아버지' 공연이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 1,764만원을 지원받아 공연을 추진한다.

연극 '나와 할아버지'는 2013년 초연 당시 전 회차 매진과 함께 평균 객석 점유율 100%를 기록하며, 대학로 연극계에 한 획을 그은 작품으로, 소박하고 진솔한 우리네 '삶'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자 작, 연출을 맡은 민준호가 실제로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여 쓴 연극이다. 또한, 옛사람을 찾아 나서는 '할아버지' 역은 초연부터 지금까지 참여하며 변함없는 감동을 전담해온 '공연 배달서비스 건다'의 대표 배우에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표치수로 안방까지 사로잡은 신스틸러 '양경원'이 맡아

마음으로 스며드는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7월 2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부안예술회관 1층 관리사무실에서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입장권(1,000원)을 사전 판매할 예정이다.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대학교 수준의 높은 연극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박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모두 연극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 공연은 7월 2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부안예술회관 1층 관리사무실에서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입장권(1,000원)을 사전 판매할 예정이다.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은 "대학교 수준의 높은 연극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소박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우리가 모두 연극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전쟁·유엔군 참전 사진전 '전쟁터에 날아든 파랑새'

군산 3·1운동 100주년기념관, 8월 31일까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한국전쟁의 참혹한 현장과 치열한 전투에 참전한 유엔군의 모습을 담은 '전쟁터에 날아든 파랑새'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불안한 휴전 상태로 중단된 한국전쟁의 기록을 담고 있다.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민족 간 혈투가 남긴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 등의 가슴 아픈 기록과 머나먼 나라의 낯선 땅에서 타국민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활약을 담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돼 있으며 1부 '상처만 남은 한국전쟁'은 한국전쟁 당시 황폐화 된 도시와 피난민들의 모습, 2부 '복습시켜 참전한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의 활동과 기록, 3부 '전쟁이 끝난 군산의 삶'은 한국전쟁 직후 군산에 주둔했던 주한미군 키스 아이스버그가 찍은 장미동 피난민촌의 모습을 전시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전쟁을 경험



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죽음을 불사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길 바라며, 전쟁이 가져온 파괴된 일상과 험난한 피난 생활의 기록을 통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에 개관했다.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영명 학교와 예수병원, 구암교회 등이 주축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킨 상징성과 군산 독립 만세운동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 호국보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청춘 마이크 전복권' 28일부터 비대면 실시간 스트리밍 공연

사단법인 아이엠은 2021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전복권' 사업을 통해 오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6월 공연은 원주 복합문화지구 누에의 누에아트홀에서 준비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채널 '사단법인 아이엠'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예정이다.

대중음악과 양악, 국악, 연극, 무용, 다원 예술, 예술 일반 등 전 장르의 28개 팀이 공연을 펼치며, 공연 종료 후 온라인으로 관객들과 예술인이 댓글을 통해 소통하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또 인터뷰에 참여하는 온라인 관객에게는 '청춘(청춘 마이크)가 간식을 쓴다!'라는 이벤트를 통해 치킨과 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간식을 기프트콘으로 증정한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참여 예술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질문을 댓글로 올리면 된다. 예술인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채택된 질문의 아이디어로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뉴시스

새만금 케이팝 페스티벌 9월 열린다

새만금개발청, 9월 10~12일까지 국내 최정상 가수 출연·프로그램 등 진행

오는 9월 10일부터 2박 3일간 '새만금 케이팝(K-pop) 페스티벌'이 새만금 신시가지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주)전주MBC프로덕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들과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4년간 새만금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노마드(NOMAD 유목민)를 케이팝(K-pop)에 접목한 것으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한류 문화축제로 마련된다.

자유로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광활한 새만금의 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해 가며 소통·교류하는 캠프형(야영) 축제다.

핵심 프로그램이 될 케이팝(K-pop) 콘서트는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K-트롯 가수 등 국내 최고의 출연진으로 구성된다.

또 부대행사로는 출연진 사인회와 기념촬영,

응원하는 가수와 함께하는 '스타 AR(증강현실) 사진관' 등을 비롯해 유명 유튜버를 진행자로 스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토크쇼 등이 마련된다.

기존의 노마드 축제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불의 제전', '불의 제전'을 포함해 새만금의 밤하늘을 수놓을 '프리미엄 환타지쇼', '개성 넘치는 버스킹(거리공연)', '캠핑요리 경연대회'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음악과 함께 화려한 특수효과(불꽃놀이, 레이저쇼, 특수조명 등)로 야간 불거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새만금 케이팝(K-pop) 페스티벌'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오직 새만금에서만 즐길 수 있는 신명나고 이색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누리집)와 각종 매체광고, SNS(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을 통해 축제 참여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 구성, 출연진 등을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